



내-일을 그리다, 2016

청소년 창직지원

내-일 2020

프로젝트



청소년 창작지원

내-일 2 방 방 프로젝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청소년이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진로탐색 & 창직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재능탐색워크숍'과 '내-일찾기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는 각 과정 수료 후 수료증이 수여되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밀착 멘토링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2016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희망제작소, 전주YMCA,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버버리기금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는 진로탐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전체 일정



-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강연 및 사람책
- 전주, 완주 5개 장소
(고산중, 고산고, 신흥중 외)



-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주체들이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
- 전주 2팀, 완주 2팀
(팀당 각 15명)



- 청소년이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발견하고 기획해
실행하는 창직 동아리 활동
 - 재능탐색워크숍의 심화과정
 - 전주 2팀, 완주 2팀 (팀당 각 8명)
-

일정표



16.06.10 완주 고산고등학교
16.06.13 완주 고산중학교
16.06.20 전주 온고을중학교
16.06.26 전주 증부비전센터 (전주 · 순창 통합)
16.06.29 전주 신흥중학교



16.07~16.10
전주 밥! 생명의 고리잇기
전주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삼인행
완주 삼삼공작소
완주 우리동네문화기획단



16.10~16.12
전주 밥! 생명의 고리잇기 - 여행을 떠나다
전주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순창까지 찾아온 작은 과학캠프
완주 동네방네요리조리
완주 시간을잡는소녀들

내용

step. 1 상상학교	1
1. 현장 속으로 : 함께하는 사회, 미래의 삶	2
2. 상상학교, 사람책 읽기	4
01_사람책 속으로	
02_사람책 살펴보기	
step. 2 재능탐색워크숍	15
1. 밥! 생명의 고리를 잇다	16
01_그들이 장터에 간 까닭은?	
02_장터 이야기	
03_결과 공유회	
04_참여자 이야기	
05_매개자 이야기	
2. 삼인행, 지금 만나러 갑니다	30
01_ 70일 간의 여정	
02_삼인행 이야기	
03_결과 공유회	
04_참여자 이야기	
05_매개자 이야기	
3. 삼삼공작소	46
01_개요	
02_삼삼공작소 만드는 과정	
03_집들이에 초대합니다.	
04_우리들의 말	
05_멘토의 한마디	
4. 우리동네문화기획단: 로컬푸드 요리사	52
01_개요	
02_왜 제철재료로 요리를 해야할까?	
03_요리하는 과정	
04_결과공유회: 로컬요리사 시식회	

05_우리들의 말	
06_멘토의 한마디	
5. 우리동네문화기획단: 우리를 노래해요	58
01_개요	
02_함께 노래하는 시간	
03_우리의 노래	
04_우리들의 말	
step. 3 내-일찾기프로젝트	63
1. 밥! 생명의고리잇기	64
00_여행을 떠나다	
2. 지금, 만나러 갑니다	65
01_순창까지 찾아온 작은 과학캠프	
02_멘토의 이야기	
3. 동네방네요리조리	70
01_개요	
02_요리조리 과정	
03_동네방네요리조리 판매 행사	
4. 시간을 잡는 소녀들	74
01_개요	
03_시잡소 제작 에피소드	
Epilogue. 내-일을 그리다	79
01_포럼 스케치	80
02_진로, 우리의 과제는?	83

step. 1

상상학교

1. 현장 속으로 : 함께하는 사회, 미래의 삶
2. 상상학교, 사람책 읽기
 - 01_사람책 속으로
 - 02_사람책 살펴보기



1. 현장 속으로 : 함께하는 사회, 미래의 삶

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10년후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사라진다면?

10년 안에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버스안내양, 전화교환수가 지금은 사라졌지요. 과거에 미국에 유명한 고소득 직종이 있었어요. 레이더가 발달하기 전에 적기가 오는지 여부를 어떤 장치를 통해 귀로 듣고 미리 알아내는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직업은 다 사라졌어요.

인공지능의 시대, 직업세계가 달라진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무인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가 등이 다 사라지고 운전석이 사라지면서 자동차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법관, 의사, 예술가 등의 전문직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요. '페퍼'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1초에 8억 페이지를 읽는다고 해요. 1분 동안 480억 페이지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이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뇌과학자 정재능은 "현재 기준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기준, 즉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숫자와 언어, 정보 분석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능한 능력만 배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가야 10~15년 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나, 나의 이야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목하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나와 함께 사는 친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출발하는 것이 유니크함을 낼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가 미래시대에 중요해질 것입니다.

2. 상상학교, 사람책 읽기

01_사람책 속으로



김철연 (마더뮤직 대표)

“나만의 연습법을 가져야 해. 고등학교 때 내가 생각한 것을 적어보고, 꿈도 적어보고 나만의 연습방법을 찾아야 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타를 잡아. 6줄이 있어. 도도, 파파파, 000 기계처럼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드를 다쳐~~ 그걸 다하고 나면 1시간이 걸려. 학교 다닐 때는 아침마다 1시간씩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나 노래 뭐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하지? 핸드폰 보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엑서사이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도 나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다. 다음에 꼭 봤으면 좋겠고, 멋있어져라!!”

저는 음악 하는 사람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음악선생님으로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어쿠스틱 기타와 작사, 작곡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저는 댄서였습니다. 춤을 추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것 밖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레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악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내가 가르치는 일을 잘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음악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와 다른 일상을 사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학생들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음악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런 ‘삶의 열정’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과 가르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며,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늘 고민과 연구로 더 나은 ‘가르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람과 재미를 느낍니다.

일과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재능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저보다 그 분야에서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선천적인 재능 이상의 후천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직업인으로 나는 어떠한 태도로 매 순간을 마주 해야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쉽게 지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바쁠 때,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가르치는 일로 여러 기업/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 하시는 분들(단체)에 따라 제 생각과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단체의 기존 성향 및 방식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매 순간, 순간의 상황에 대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을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복기하다 보면, 유사한 문제들 끼리 묶을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작은 위기’가 오히려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통해 더욱 즐거운 삶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지역에 내려가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분들과 만나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SNS가 있기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근황과 일상을 살피며 늘 연결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선택했던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음악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하더라도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생님, 생동감 있는 선생님이로 다가가 그들이 음악을 보다 즐겁게 배우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 그냥 대학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커서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혹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져 본 적이

없기에 늘 생각만 하고 말곤 합니다. 어른이 되며 돈을 벌어야한다거나, 군대에 가야 한다거나, 아이를 키워야 한다거나 꾸준히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청소년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았는지는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찾아보세요.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습관’을 길러 보세요. 이기심이 아니라, 튼튼한 마음을 가진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수 (그린디자이너)

그린디자인 스튜디오 <네이처리듬>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에이전시와 비영리단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었습니다. 기업과 미술계쪽의 디자인 작업을 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린디자이너이자 환경운동가인 윤호섭 선생님을 만나뵙고 디자이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며 그린디자인을 추구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에서 즐거움과 가치를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즐거움과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또한 누군가 일을 의뢰하지 않아도 스튜디오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린프로젝트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 고등학교 때는 일과 진로에서 중요했던 것은 ‘즐거움’ 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치’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린디자인 스튜디오로서 친환경프로세스와 메시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사이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료, 생산, 유통,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체크하며 디자인 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정보와 현장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들의 작업을 스스로 돌아보려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회와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일

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음식물 등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는다면 저와 저희의 일을 넘어 우리의 미래는 건강히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생활의 규모를 줄여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일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결음씩 성실히 나아가면 누구나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요. ^^



황경택 (숲놀이 교육자, 생태만화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만화가라는 직업과 자연해설가라는 직업인데. 결국은 같은 일이에요. 만화도 자연만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겠네요. 만화가나 해설가나 모두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이야기꾼으로 이해해두면 좋을 거 같아요. 예전에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한 것은 없어요. 대학생 때 연극을 했던 거 말고는 이후 바로 만화가가 되고자했고 만화가가 됐고 만화가들의 단체인 '우리만화연대'라는 곳에서 교육이나 회원관리를 맡은 간사 일을 했고 이후 '숲연구소'에서 교육팀장을 맡으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 관리 등의 일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모두 지금 사람을 만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듯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꿈을 갖는 건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꿈이란 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바뀔 걸 알고 아예 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꾸되 그것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바뀌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이라는 것.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꾸는 내 꿈이 꼭 내가 이뤄야 할 과제는 아니에요.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해요. 왜냐면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미래의 꿈을 위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꿈을 가지거나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

는 거예요. 지금 자고 싶으니까 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가수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노래하는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은데 공부하고 있거나 의사가 되고 싶은데 노래하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거나 싫증이 나면 다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찾아보는 거죠. 조금해하지 말고. 없어도 되니까. 우리 부모들은 꿈을 꿔왔을까요? 사실 그분들은 전쟁을 겪고 난 뒤라서 먹고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꿈보다는 돈을 벌기위해 삶을 바치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후회를 하고 자식들은 자기처럼 살지 말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지금 잘 못살까요? 아니예요. 꿈이 없으셨고 꿈을 포기했고 꿈을 못 이뤘어도 지금 잘 살고계세요. 그러니 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좋아하는 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저도 28살이란 나이에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어릴 적 꿈은 주변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가슴속 저기 깊은 곳에서 들리는 말은 무엇인가? 들어보면 다른 것 일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다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사실 어른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텔레비전 보면 매일 매일 범죄뉴스가 많지요? 그런 게 다 실수예요. 그리고 다 어른이에요. 어른들이 청소년보다 더 많이 실수하거든요. 청소년들은 실수하기가 더 쉬운데 그 실수를 너무 뭐라고 하니까 안하려고 애쓰지요? 스트레스도 받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위대한 발견은 대부분 실수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도 실수에 의해서 탄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실수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진화를 만들어냈기에 탄생한 거잖아요.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 차근 줄여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늘 즐겁게 사세요. 즐거운 일이 뭐있을까 고민하면서. 학생 때라서 힘들지 몰라도 그 와중에도 또 재미난 건 있거든요.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하고 사세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소중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지요. 친구가 뭐라 해도 가족이 뭐라 해도 나 스스로는 나를 믿으면 돼요. 난 좋은 애야. 난 괜찮은 애야. 나를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자.

김정민 (서울시 언론홍보)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다, 최근에는 서울시 대변인실 언론담당관에서 언론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에는 영화/영상을 전공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방송국PD가 되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언론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tbs교통방송의 라디오

PD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도 크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tbs교통방송이 서울시의 산하기관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던 ‘칼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60세 정년까지 꼭 채우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공익적인 일 -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는 작업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환경 상, 이러한 작업들은 예산 편성이 높게 된 ‘행정’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변인실에서의 업무를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어 상당히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인 ‘공익적인 일을 홍보’하는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람도 크고요.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꿈’은 위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사례를 통해서 타 지자체들도 큰 영향력을 받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여론을 통해 정책을 더욱 확산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좀 더 탄탄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통해 이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으로서의 시민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데... 이게 ‘여론’이 될 수 있게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는 민원이라든지, 여론동향에 대해서도 집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잘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원래 전공했던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긍정성을 발휘하는 데에 저의 경험이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성 있는 삶을 통째로 깊이 있게 고민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진로에 대해 막막해 하는 친구들이 있곤 한데요. 그렇다면 ‘싫어하는 것’만 잘 골라 피해 가더라도 반은 성공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라디오PD가 되었다가, 막상 해 보니 나에게 별로 잘 안 맞는 직업이었던 것처럼 좋고, 싫은 건 늘 변화하지요.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다음 발걸음을 잘 옮기기 위해서라도 ‘주체성 있는 삶을 살아본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트렌드를 선점하여 실질적인 이윤창출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넓은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하고, 변화를 웃으며 수용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삶’을 사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02_사람책 살펴보기

임정아 (우리동네사람들)

한집에서 6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산지는 5년 정도 됐다. 저도 대학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지내다가 시골에 내려오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고 이야기 했다. 돈 모으고, 대출받아서 집 하나를 얻었다. 5년 전 6명이 같이 살기 시작해서 5집에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같이 맥주집도 하고 농사도 짓는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마음껏 자고, 마음껏 놀고 난 후에 뭘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5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고, 오늘 내가 이것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미리 알지 못했고, 내일 뭘 할지도 알 수 없다. 하고 싶은 것을 좋은 사람들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국태봉 (이웃린 영농조합)

내가 아는 세계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작은 것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이웃린이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처음으로 한 것이 고산고 멘토링 사업이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하니 빵을 만들기 시작했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한 끼의 밥이 되는 빵을 만들고 그 수익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 옆집 사는 삼촌 이모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마을이 되고, 아이들이 되길 기대하지.

“너희의 나이가 16~17살 너희 나이 자체가 가능성이다. 너희가 공부를 안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재밌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꿈꾸는 꿈을 쫓으면 좋겠어. 지금의 상황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민수 (완주 휴건축학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다른 일과 진로에 대해 고민 할 것입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휴으로 집을 만드는 것, 공간을 만든다는 건,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들입니다. 어느 장소든, 나라든 주변의 흔한 재료로 공간을 만들고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함께 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다솜 (완주 청년농부)

고용되어 하는 사무 일을 했을 때에는 흥미를 느끼기 매우 어려웠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실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돈을 벌었지만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정직한 일. 스스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태적인 삶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좋은 공간을 만들어 살고 싶어요. 제가 살 작은 집을 짓고 싶고, 농사도 짓고 싶어요. 자연농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미경 (완주 넬리넬리홍홍 대표)

‘미경쌤, 기자양반, 노처녀, 동네이모, 동네언니, 장양, 장 감독... 그리고 장 사장’
고산에 와서 저에게 생긴 여러 개의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달에 5가지 정도의 일을 돌리다가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강사(영화, 잡지), 각종 홍보영상제작, 잡지나 신문에 글 기고하기, 지역신문 기자, 가게 사장. 이렇게 크게 구분하자면 5가지 일. 집세 내고 어찌고, 저찌고 살려면 이 정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6년의 경험 끝에 몸으로 체득한 거죠. 나는 느리지만 제 속도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거기에 맞춰 일을 하고 살아가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 가지 일에만 매진했다면 많이 지쳤을 텐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흥미로운 일도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만큼 일하며 만난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취재 다닌 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 ‘아! 나는 책상이 아닌 길 위에서 배우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김소연 (지리산 살래청춘식당 마지)

‘여행’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캄보디아에 1년, 필리핀에 1년 남짓한 시간동안 머물렀는데 그 곳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삶을 사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지내면서는 오갈 때마다 “밥먹었냐”며 서로를 챙기는 마을 분들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필리핀에서 지내면서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과 지역에 남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겨났고, 지역살이, 마을살이, 시골살이에 관심이 생겼어요. 나의 에너지를 골고루 스스로 분배하며 내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평생 가져가는 것이지만, 일과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화두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현두 (커피트럭 여행자, 공간153)

6년 동안 세 곳의 직장에 공백 기간도 없이 일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어른 고아가 된 저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진안에 정착하여 80년 된 고옥을 고쳐 살고 있는데 집을 짓는 3개월 동안 150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해주었고, 일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혼부부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 회사의 메인 광고모델이 되고 유명세를 타면서 정말 많은 여행관련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작정 집을 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났습니다. 몇 백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욕심을 버리듯 나의 집을 버려나갔습니다. 15kg 하던 짐이 나누어주고, 버리고 하니 8kg이 되더군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홀로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날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혼자가 되었을 때 더욱 성장하게 하는 힘을 고독력이라고 합니다. 슬프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삶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우울력, 절망력.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서요.

홍성순 (순창 금산여관 흥대빵)

백화점에서 유명브랜드 콜롬비아 매장은 운영하며, 연봉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이면 2천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백화점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 창문, 1층 화장실입니다. 그 닭장 같은 곳에서 하늘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자 연봉을 포기하고, 여관 주인장이 되었습니다. 바빠도 나를 위해 여행은 꼭 다녔는데 그 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행하며 불편했던 기억을 모아, 여행자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17년이나 된 생각을 드디어 실현하게 된 것이죠. 순창터미널 근처에 오래된 여관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빈티지한 것에 끌립니다. 녹슨 철문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추억을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꼭 기록하세요. 작은 책 하나를 꼭 내세요. 사진첩이라도 말입니다. 요새는 기술이 좋아 싼 가격으로 나만의 사진에세이정도는 몇 만원이면 만들어줍니다(웃음).

여광범 (여문심리상담연구소)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괴롭다. 웬지 죽고 싶다. 짜증나. 열 받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살아온 것이 주르륵 떠오르더라.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네. 힘들었던 것이 가짜들 투성이 속에서 힘든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다. 세상이 가짜였던 거지. 내가 살아온 것이 진짜였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나만의 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다. 가난, 편견 등이 진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가짜 나를 만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삶을 보고 이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다. 내가 쓸모가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맙게 내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뭘 잘하나 잘하는 것이 없다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원민 (전주 우깨팩토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일을 했다. 싱가포르에서 살았다.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할 수 있을까를 기획하는 것이었다. 싱가포르로 주저 없이 갔는데 재미가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다. 한번 취업에 실패를 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3년을 준비했지만, 결국 6개월 차에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알았고 8개월 만에 그만뒀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치고 좋은데 가서 일해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엄성복 (전주의제 21)

제가 일하는 곳은 전주 시청에 사무실이 있다.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고산에 사는데 불편한 것이 있을 거다. 시민들이랑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랑 시 관계자들이랑 회의를 한다.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 저희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시민들이 살고 싶은, 바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제 명함을 보시면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좀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step. 2

재능탐색워크숍

1. 밥, 생명의 고리를 잇다
2. 삼인행, 지금 만나러 갑니다
3. 삼삼공작소
4. 우리동네문화기획단: 로컬푸드 요리사
5. 우리동네문화기획단: 우리를 노래해요



재난탐색
등 관 워크숍



1. 밥! 생명의 고리를 잇다

01_그들이 장터에 간 까닭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 물자는 자연에서 일정하게 노동을 하여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는 원시시대나, 농경사회, 근대사업사회에서도 깨질 수 없는 원칙입니다. 차이라면 자연 그대로의 물자를 토대로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노동 산물인 원료를 변환하여 노동을 하는 차이랄까요? 그런데 자본주의체제가 생겨나고, 노동의 대가는 점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생산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게 된 것이죠. 노동이 사회 문제가 되고나서부터는 생존을 위협당하는 말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기성세대는 어린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성장하여 중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입시와 경쟁 지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독해지라고 합니다. 노동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노동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정당하게 노력의 산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생명의 고리 잇기’팀은 밥이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밥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밥을 중심으로 반찬과 어우러져 식탁을 완성시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식발을 하며 투쟁하는 사회에서,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동의 대가와 의미를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 아이들이 장터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장터에 간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02_장터 이야기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지만 밥은 서로 서로 나누어먹습니다.” 밥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밥! 생명의 고리잇기”팀은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청소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터에 앞서 두 달 동안 장터에 물건을 팔기 위해 동고동락하며 좌충우돌한우리 친구들의 여정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전주YMCA 강당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의 또 다른 팀인 “지금, 만나러갑니다”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스타로 탐을 쌓고(친교놀이),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나누고, 프로젝트에서 지켜야할 약속을 정하며, 나의 경험이 깃털이 되어 날아오를 수 있다는 전주YMCA 손유주영 선생님의 말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7월 28일 전주YMCA, 자연음식문화원

아프리카 케냐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의미와 악세사리 유통의 방법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오수미 NGO 드림스퀘어대표가 전주YMCA를 방문하였습니다. 몰랐던 케냐 청소년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밥!생명의고리잇기”팀이 만들어진 이유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먹거리로 시작하는 생명평화”를 말하는 자연음식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의 유지원 대표는 밥과 생명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만들고 먹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4일~6일(캠프) 전주YMCA, (주)천년누리전주제과, 진안사과농장

빵, 사과 생산지를 직접 견학해보고, 물자의 생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사과를 직접 숙아보고, 노동의 힘들을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장터에 내다팔 생산품과 가격을 확인하고, 향후 주문 여부를 타진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리산 실상사와 둘레길을 돌아보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기를 충전하였습니다. 저녁에는 공급전략회의를 통해

판매전략을 세우고, 일정동안 참여한 생산자와 공동체를 평가하고, 노동에 대한 참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지요.



이 때 진행했던 캠프 진행원칙을 살펴볼까요?

1. 고생, 웃음, 즐거움, 생명, 삶, 노동, 생산, 공급의 의미를 학습하는 계기를 삼는다.
2. 자치적인 활동이 되도록 적극 참여한다.
3. 각 조별 담당 청소년을 정해서, 생산지 방문 시,
리더의 역할과 질의 응답 및 향후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4. 밥은 직접 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밥을 준비하는 노동은 평등하게 진행한다.
5. 청소, 정리정돈 등을 자치적으로 이루어 간다.

- 규칙조차 비장합니다.

8월 17일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중부비전센터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에 자리를 내어주고, 시장이 노령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상가 연합회에서 아무도 쓰지 않은 시장 옥상을 청년들에게 내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곳에 우리 참가자들이 왔네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지요.



참가자들의 미션!

밥집에 들어가 밥을 먹으며 사장님 인터뷰하기.

“예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요?”

“왜 청년몰에 가게를 차리셨나요?”

“사장님의 현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더운 날씨에 약간 지친 모습이었지만 음식점을 고를 때는 자못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라파식당에 따라 들어가서 친구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보았는데 사장님이 어른들에게는 경계를 띄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허물없이 해주시는 모습들이었고, 각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주셨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뭔가 비장한 대답을 원했던 한 친구는 “부인이 가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라는 다소 허무한(?) 대답을 듣고는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마도 인생이란 완벽한 준비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삶의 방법을 배웠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세상을 탈환해야 할 정복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살던 청소년들이 어깨에 힘을 빼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몰에서 인터뷰와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 중부비전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밥!생명의고리잇기팀은 다시 4개의 작은 모둠으로 나뉘어 판매물품을 고르고, 시장에 나가 직접 물건을 팔 계획입니다. 모둠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 샤샤샤

이동연(지기), 정대영, 구윤근

- 알감자를 조리하여 판다.
- 팀블러를 디자인을 생각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서 환경을 위해 개인컵 사용을 장려한다.
- 부채를 디자인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지) 더운 사람들에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고 약하게 틀고 부채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며,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을 알게 도와준다.

- 수익금은 30% 불우이웃, 50% 팀을 위해 사용, 20% YMCA 운동기금 후원에 사용한다.

◎ 조정현 멘토 피드백

공정무역 제품을 제외하고, 초기 품목을 정하지 않고, 팀에서 직접 품목부터 공급과정에 대한 스스로 기획, 실천하고 계시군요. 유통의 현실 가능성, 판매가능성, 저장성, 재고 처리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주 판매 타겟 선정하세요. 친환경 로컬푸드 고구마(햇 고구마는 누구나 사먹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간식용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세월호(뽕지 및 리본, 손수건, 우산) 등의 품목을 고려해보세요. 함께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며, 시대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있네요.

두 번째 팀 수복강녕

김은서(지기), 신승철, 문수영, 조은정

- 판매된 이익금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에 쓰인다.
- 생산자 견학은 8월말쯤 상의 후 결정한다.
- 도청 앞에서 판매를 하고,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 조정현 멘토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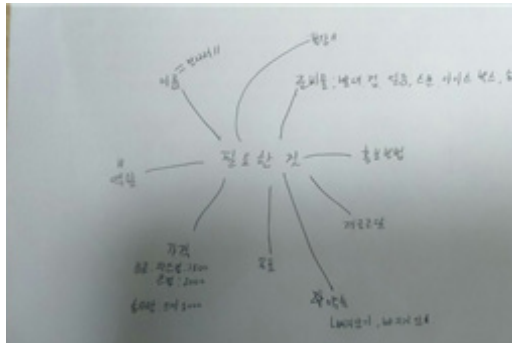
음료라고 하는 나름 경쟁력 있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평화와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품목을 고민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커피, 탄산음료 등은 팔지 않기” 같은 것 말입니다. 또한 장터 판매 외에는 어떤 방식의 판매를 할 것이며,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다른 팀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계획해보세요.

세 번째 팀 Y청소년 사과

전희원(지기), 정재윤

- 9월3일 농장방문, 품종, 원가 및 판매가격, 공급수량을 결정한다.
- 도청 앞 (9.9~11), 학교 (개학후~추석전), 지역아동센터, 상의 후 결정하여 판매한다.
- 홍보는 취지를 설명하고,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다. 껍질째 먹는 사과 무농약 사과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홍보물 제작을 하고, 시식코너를 활용한다.



계획서가 꼭 목적, 목표, 세부내용.... 이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 조정현 멘토 피드백

곧 다가오는 명절을 노려, 선물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 물품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진안사과농장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다고 하여, 꼭 방문하여 시식을 해보고, 진안사과의 장점(농약을 치지 않는 것, 사과와 다른 과일의 차이 등)을 부각하는 홍보 마케팅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크기와 맛에 따라 가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생산지, 품종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다른 사과와 차별성을 부여됩니다. 홍보계획, 판매계획(총 수량), 유통, 생산지 2차 답사 등 명확히 세워주세요. 또한 사과라는 경쟁력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먼저 팔려 시간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전하는 다른 팀들에게 지원사격 해주세요.

네 번째 팀 새내기 제과

이평안(지기), 라은혜, 전재언

- 이익금을 남겨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 메뉴마다 팻말을 세우고, 시식코너 만든다.
- 요리사 의상 컨셉을 맞추고, 홍보 프린팅을 활용한다.
- 8월내에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전주빵'에 들린다. 판매예정 물품을 사장님과 상의하여 조율한다.

◎ 조정현 멘토 피드백

빵의 종류, 수량, 유통 기간 등을 확인하여 계획을 수립하세요. 사회적기업 전주빵에 도움도

되고, 제고가 안 남는 선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터에서는 빵 판매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YMCA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간식용, 지역아동센터 간식용, 학교 간식 등 세부적인 판매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월 9일, 전북한가위장터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 곳은 전북한가위장터가 열리는 전북도청 앞입니다. 3일에 걸쳐 “장사를 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 오미자차, 매실차, 아이스커피, 솜사탕을 파는 “수복강냉”팀

은서, 은정, 효민, 수영, 승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놓고,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만들고, 솜사탕 기계를 돌립니다.

◎ 참가자 소감 한마디

승철 | 장터에서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처음해보는 일이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막상 가보니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어색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 들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 사과를 파는 “Y청소년사과”팀

희원, 현진, 재윤, 인석



무농약 사과입니다. 피부에도 좋아요~

◎ 참가자 소감 한 마디

회원 | 물건 판매를 위해서 생각 보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상인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고, 푼돈이라 여겼던 돈의 소중함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시장 속 훈훈한 분위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북한된장을 파는 “샤샤샤”팀

윤근, 동연, 대영



물품 선정에서 고전이 심했던 샤샤샤팀

◎ 참가자 소감 한 마디

동연 | 판매 과정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참석하지 못했어요. 전주YMCA로 후다닥, 선생님과 배달 1건 뛰고 판매 현장으로 뛰어갔죠. 뭔가 알 수 없는 체계적인 움직임과 묘한 복적임에 함부로 길 수 없었고 처음엔 그냥 뒤에 서있었어요. 마치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을 간직하고 첫날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래도 남은 2일간은 그렇게 마냥 서있지만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추가로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사실 우리 팀보다 다른 팀 애들이 된장을 거의 팔아줬어요. ㅎㅎ) 판매 후기를 쓰자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고, 흘린 땀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고, 하나의 물건, 음식을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03_결과 공유회

10월 14일 전주YMCA에서 그 동안의 결실을 마무리 짓는 결과공유회가 열렸습니다. 만찬준비로 시작하여 분주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준비팀이 일찍부터 모여 행사장을 정리하고, 장을 봤습니다.

손유주영 멘토의 설명으로 그 간의 일정을 되돌아보고, 지기(대표)를 맡은 청소년들이 활동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에서 목적성이 분명한 새내기제과 팀 은혜의 발표로 공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팀워크가 좋았던 수복강녕 은서가 그 뒤를 이었고요. 수익금 기록을 남긴 Y청소년사와 팀에서는 회원이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엇치락뒤치락하던 샤샤샤 팀은 팀명을 갑자기 바꿔 내세워 친구들의 편찬을 들으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좌충우돌하며 반성도 많았던 이 팀의 정말 솔직한 발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으니 미남이신 조정현멘토님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그들만의 만찬”에는 대하 20마리, 목살 10근, 그리고 땀으로 범벅된 노력 열다섯 스푼이 주 재료였습니다.

효민아,
비록 장터에서는 활동을
많이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어.

은성아,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친구.

도현이,
지기(대표)여서 고생 많
았구, 이끌어 가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

주영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요.

대윤이,
분위기 띄우느라 고생 많았
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다.

회원아,
팀원들 잘 이끌어주서
고마워

재민아, 친구들에게 다가
와주고, 친근하게 대해줘
서 고마웠어.

대현이, 성실히
참여해줘서 고마워.

인성아,
사과팔면 잘할거 같아.

조정현선생님,
모두 참여해줘서 고맙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웃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환아,
새내기제과 지기, 묵묵히
잘 해줘서 칭찬하고, 미안
해서 열심히 했다.

04_ 참여자 이야기

은혜 | 제대로 만난 시간은 얼마 안됐는데 되게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지금 우리 나이 또래에는 겪기 힘든 일들을 우리는 거의 스스로 해냈잖아? 그걸 한번 되돌아보니 괜시리 뿌듯했고 그리고 벌써 시간이 세 달이나 흘렀다는 거에도 놀랐고 다음 3차에는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번 에 아쉬움이 많았던 일들을 풀어나가고 싶어.

재언 |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뭔가 조금씩 해나가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지금 돌아보면 더 적극적으로 애들과 선생님께도 표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더 친해지지 않았을 까하는 생각이 들어

평안 | 처음에는 막연히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경험해보려고 신청했었던 프로젝트야. 아직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함께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힘들기도 했지만 무언가 자신이 힘써서 이뤄냈다는 것에 성취감이 있기도 하고 또 생각한 것처럼 여러 좋은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어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서 | 처음해본 일이라서 색다르기도 했고 돈을 버는 게 힘든지는 알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알게 됐고. 무엇보다 보람찬 날들이었어.

은정 | 난생처음 물건을 파는 일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해서 친구들과 같이 도우면서 재미있었고 즐거웠네.

효민 | 우리들이 팔 물건을 수요조사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과정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일정이 다 끝난 뒤 정말 뿌듯했어.

승철 | 처음으로 물건 팔러 한가위 장터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이 긴장 했어. 막상 현장에 가보니 남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어색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어.

희원 |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정해야 하잖아. 마트에 가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구. 인터넷보다 비쌌어. 그걸 고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했지. 한 박스에 원가가 2만 5천원인데 2만 9천. 수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순수익은 38만원. 판매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평소에 전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니, 판매자의 입장을 알게 됐어.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변수도 생기고, 그걸 해쳐나가면서 푼돈이라고 생각했던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알바하면 한 시간에 6천원을 버는데 고작 한 박스

를 팔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알게 되었어.

대영 | 처음에 조를 나눌 때 빵을 팔려다 보부상을 떠올리니 뭔가 그럴싸하고 멋지지 아니한가! 하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회의를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 조는 답이 없다는 걸 느꼈어. 매 모임마다, 심지어 지금 이순간도 다른 조로 도망을 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놈들은 정말 참여율도 불친절하고 성의도 없어. 물론 나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놈들은 정말 최악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 녀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재활용도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해야만 했어. (기억도 안 날만큼 쓸모없고 미미한 아이디어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찾은 장소는 막상 가보니 시장에 팔기에 적합하지 못했고, 화가 나서 학교에서는 대영이한테 시비를 걸었다. 정말 다행히도 선생님이 북한위원장, 간장 판매하시는 분들과 연결도 해주시긴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어. 거의 모든 시간을 업체 찾는데 사용한 것 같다. 투명인간(!)들과 여러 업체들을 검색해보고 연락해서 시장에 팔기 부적합(!)한 훌륭한(?) 장소를 찾았어. 좀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된장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펐어. 어찌됐든 우리 팀은 선택지가 된장뿐이었지만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뭐 녀석들에겐 나중에 말해줬지만 ‘어 그래’ 라는 차가운 반응. 어찌됐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고, 확실히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것 같고 하나의 물건, 음식을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됐어(급조된 훈훈한 마무리).

▶ 특별 인터뷰

◎ 전주공업고등학교 1학년 전재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쓸쓸함이 익숙하지만

친구들과 선배들과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활동 속에서 ‘같이’, ‘함께’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Q.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에피소드?

A. 지리산 갈 때 (엠티), 차타고 갈 때가 제일 힘들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Q. 여긴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수업 듣기 싫어서(웃음) 학교 선생님이 해봐라 해서 참여했다.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된 점이 좋다. 여긴 있는 친구 다 친해졌다. 물론 나 혼자 생각일 수 있지만.

Q.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A.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동시에 남도 좋게 하는 것. 애

매하다. 직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고 싶다.

Q. 새내기 제과를 운영하는 것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

A.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판매자의 힘든 점을 알게 되었다. 판매자를 설득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Q.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볼 생각은?

A. 전주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 웬만하면 그러고 싶다. 다른 지역은 어색하다.

Q. 프로젝트가 어떤 도움을 줬는가?

A. 모르는 애들한테 다가가는 것.

◎ 전주공업고등학교 1학년 “책임이라는 무거움과 즐거움을 알게 된” 전희원

디자인을 통해 CEO가 되고 싶은 회원이. 나와는 다른 친구들의 성격이나 특징도 모두 긍정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미래가 기대되는 청소년.

Q. 밥!생명의고리잇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참여율이 저조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장터에 나가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낮가림도 탈해지니까 활기차게 변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힘들었던 점은?

A. 사과 파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데, 수량도 모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봤던 부분이 힘들었다. 열심히 알아보고, 조정현멘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회의 참석했을 때 계획서가 기억에 남는다. 맵을 통해서 생각을 펼쳤던 부분이 기억에 나요.

Q. 어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어 가는 게 있었는가?

A. 조장으로서 많은 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다. 지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나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은 사라졌다.

Q. 지금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될까?

A. 만약에 또 지기(책임자)가 된다면 팀원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일을 분담할 것 같다. 처음에 말한 소극적인 친구처럼 그런 사람은 먼저 하려고는 안하는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니깐 그런 특징을 살리면 될 것 같다.

Q.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A.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다. 이런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중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Q. 이런 프로젝트에 경험이 있었나?

A. 처음이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프로그램은 수업 형식으로 단편적. 일회성이라서 잠깐 가서 참여 하는게 다였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것은 처음이다.

Q. 전주에서 꿈을 펼칠 가능성은?

A. 꿈을 이루려면 최대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Q.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이런 프로그램을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친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5_ 매개자 이야기

◎ 조정현 멘토 (전주YMCA 사무총장)

지난 7월 처음 보고, 친구들 만났는데 1년 정도 만난 거 같습니다. 청소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 자식들을 대하듯이 대했는데 내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3단계 여행을 준비하고, 내년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리더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꿈도 꾸고 즐거움도 느끼고, 동시대를 살면서 '멋졌다, 즐거웠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반가웠습니다.

2. 삼인행, 지금 만나러 갑니다

01_ 70일 간의 여정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어디라도 자신이 본받을 만한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전주, 순창의 청소년들이 모여 삶의 스승을 찾고, 서로의 벗이 되어주며 70일의 긴 여정을 함께 떠났습니다.

“과연 나를 만나주실까?” 기대 반, 두려움 반, 설레는 마음으로 든든한 지원군들의 응원으로 중무장하고, 아이들은 하나 둘 자신들의 스승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섭외 부탁을 위해 직접 전화도 걸고, 스승에게 전해줄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스승과의 만남 날짜를 정하고,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인터뷰 내용도 스스로 짰습니다. 세 명에서 네 명의 조를 이루어 친구의 스승을 만날 때는, 사진도 찍어주고, 기록도 해주는 등 역할도 나눴습니다.

세상은 청소년들에게 기다리라 합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은 환영해주고, 자신의 질문에 공들여 귀 기울이는 어른들을 만나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 삼인행은 “완벽”하다고 표현합니다.

02_ 삼인행 이야기

참가자들과 이들과 함께 해주신 스승들을 소개합니다.

1조

강초연 전주 신흥중 3학년 / 최기우 작가 및 최명희 문학관 기획연구 실장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쓰세요.

지금까지 작가들을 살펴보면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또 암묵적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마음껏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않으며 남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신조를 갖게 되었죠.

김송희 전주 신흥중 3학년 / 이신자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사람과 사람 간 소통함에 있어 생기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예진 전주 신흥중 3학년 / 김병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서로 돕고 살면 행복해 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의미를 찾고
그게 나의 주된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조

윤아영 전주 신흥중 3학년 / 강영래 병설유치선생님

내가 생각하는 상상학교는 머리말이다. 책에 머리말처럼 꿈과 인생을 시작할 때 함께 해주기 때문이다.

강민영 전주 신흥중 3학년 / 박희영 '디아망' 웨딩 및 메이크업 원장

상상학교는 인생아이템인 것 같다. 제가 알지 못 한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임찬미 전주 신흥중 3학년 / 국태봉 '이웃린' 교육협동조합 대표

나에게 상상학교는 음식이다.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듯이 상상학교는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해주었기 때문이다.

3조

정환희 전주 신흥중 3학년 / 홍성순 금산여관 주인장

나에게 있어 상상학교는 거울이다. 상상학교 활동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본보기가 되었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현수 전주 신흥중 3학년 / 정진권 전문예술법인 '푸른문화' 대표

내일상상학교는 나에게 미래이다. 내가 상상하는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규강 전주 신흥중 3학년 / 장재영 '세계일주클럽', '방랑싸롱' 대표

내일상상학교는 나에게 자기소개서와 같다. 내가 무얼 좋아하고 잘하는지, 지금까지 무얼 해왔고, 앞

으로 무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윤승호 전주 신흥중 3학년

4조

이태형 순창 순창중 3학년 / 안정진 한국스피치연구소

고승언 순창 순창중 3학년 / 문태현 미술사

나에게 상상학교는 미술이다. 미술은 연습을 하면서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미술이기 때문이다.

남상욱 순창 순창중 3학년 / 최성수 봄 레스토랑 대표

상상학교는 나에게 중거리 골이다. 답답한 나의 미래에 시원한 중거리 숲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민규 순창 순창중 3학년 / 유대수 문화연구소 '창' 대표

나에게 상상학교는 망원경이다. 망원경이 멀리 볼 수 있듯이, 멀리 미래에 있는 나를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5조

서명원 순창 순창제일고 2학년 / 김대석 전북대 기계공학 교수

나에게 상상학교는 문이다.

박정수 순창 순창제일고 2학년 / 정정희 국제요리학원 원장

최용길 순창 순창고 2학년 / 박진철 순창고 기술 선생님

나에게 상상학교는 전환점이다.

03_ 결과 공유회

9월 21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 삼인행을 함께 한 참가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하지만 함께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승언이가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오픈마술쇼 (순창중학교 3학년 고승언)

분위기가 무르익고, 조 순서대로 활동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의 스승들 외에는 어떻게 삼인행을 진행했는지 잘 몰랐던 참가자들은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활동보고

결과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길은 무엇이였을까요? 수치화 할 수 없는 그들의 경험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른

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얼굴을 가린 이들의 수줍은 미소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04_ 참여자 이야기

8월 24일, 스승을 만나기 위해 순창에 위치한 봄레스토랑에 간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상욱 | 내 꿈의 멘토인 이 곳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 꿈에 한 발자국 가깝게 다가가는 기분이었다. 나도 사장님처럼 한식으로 식당을 차리는 것이 꿈이다. 사장님의 “요리를 하기 전에 지식부터 쌓아라” 이 말씀이 가장 와 닿았다.

민규 | 대단하신 분이다. 돌아다니기 싫어서라는 나름 가벼운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도 놀랐다. 내려와서 후회도 했다고 했는데...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 것 같다. 애들은 방학 때는 놀아야 한다고 자식들을 학원도 안 보낸다는데... 꼭 막히지 않은 점이 우리 부모님이랑 닮았다. 나는 요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주목하여 봤다.

승연 |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삶의 연륜 느낄 수 있었다. 손님이 잘 안 먹는 음식은 빼고, 손님한테 맞춰서 반찬이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다

태형 | 요리에 대한 흥미가 없었는데 관심이 조금 생겼다. 사장님이 성격이 좋아 보이신다.

▶ 특별 인터뷰



◎ 순창중학교 3학년 “친화의 상징” 고승언

인터뷰를 무척 신기해합니다. 말하는 내내 고심하고 또 고심하여 한 마디마다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Q. 참가하게 된 이유는?

A. 1단계를 하고, 매개자였던 손유주영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제안하셨다. 꿈이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선생님께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마술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김태형 마술사. 이분도 YMCA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멘토로 나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Q.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A. 전주를 거쳐 군산을 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애들하고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들었다. 게다가 갔더니 멘토가 연락이 안됐다. 전화도 안 되고... 선생님께서 4시까지 기다려보다가 안되면 그냥 오라고 하셨다. 애들도 화가 난 상태였고... 못 만나고 돌아왔는데 순창에 와서 전화가 왔다. 그날 마술사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발인이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다음 스케줄을 잡는데도 좀 애를 먹었고... 어쨌든 다음으로 일정을 잡아서 만나게 되었다.

Q. 인터뷰 분위기는 어땠나?

A. 일단 마술사다 보니까 유머감각이 있었다. 말을 하면서 어색하지도 않고, 긴장이 안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다. 친구들도 모두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Q. 비슷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A. 작년에 함께일하는재단이 후원하고,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꿈꾸는교실이라는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거기서도 삼인행을 했었는데. 버스커버스커 장범준 만나러 갈 때 하필 수두 걸려서 못 갔었다.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했는데 내가 직접 가질 못해서 억울했다. 이번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못했던 한을 풀었다.

Q. 몇 개월에 걸친 장기프로젝트인데 임하는 마음과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A. 작년에 했던 활동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겼다.

Q. 마술사라는 꿈에서 고민이 있다면?

A. 유명해지고 그런 쪽으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Q. 나만의 확고한 삶의 신념이 있다면?

A. 내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문태현 마술사도 그렇다. 생계를 물어봤는데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벌리면 벌리는 대로... 이렇게 말이다. 돈이 좀 안 되도 하고 싶은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반대는 없는데 못 도와주셔서 미안하다고 하신다. 이번에 문학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순창에는 그런 학원이 없다. 그렇지만 학원을 다녀야만 꼭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학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과정도 행복하고, 마술이 재밌는 거다 보니까 나와 타인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순창에서 살아볼 생각은?

A. 큰 물에서 노는거(?) 이런거 말고, 지역에서 공연하며, 자원봉사하며 살고 싶다. 유치원이나, 교회나 요양원이나... 복지기관 등에서... 봉사하면서 지내고 싶다.



◎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순수한 하얀빛깔 서명원

서명원 학생은 튀지 않는 잔잔한 어찌보면 “그림자 같은 친구”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고, 때론 친구가 하지 못하고 맘에 담아둔 말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 든든한 친구죠.

Q. 삼인행하면서 힘들었던 점?

A. 고등학생, 기숙사생이라서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서 멘토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

Q. 1단계하면서 어땠는지?

A. 공부를 왜 하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그 대답을 듣지 못했다. 공부를 왜 하는지 그게 듣고 싶었다.

Q. 삼인행하면서 기억나는 점?

A. 학교에서 하도 ‘진로진로’하는데 아이들이 꿈이 대부분 없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걸 보면 어쩐지?) 고등학교 때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공부만 하다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생기부 쓸 때 취미와 진로가 같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지어낸다. 꿈이 자주 바뀔 수도 있는데 생기부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발표할 때 거짓말을 한다. 안타깝다.

Q. 주위에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 해 본적은?

A. 학교에서 진로 체험이 있긴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요즘에 뜬다 하는 직업 위주로) 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다.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나하고 안 맞는 거 같다. AR, VR은 장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하기가 어렵고)

Q. 순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꿈을 펼치는데 한계점은?

A. 다른 데로(가고 싶다). 도시에서 (웃음) 어려울 것 같다. 사람들 생각하는 게 틀이 있어서(견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지도자)이 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순창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Q. 이 프로젝트를 이후에 하게 된다면 참가하고 싶은 것은?

A. 지금만나려합니다 별점 9~10개 정도로 주고 싶다. 바꿀게 없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로젝트다.

Q. 3단계 바램은?

A.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바라는 게 없고 이대로 가겠으면 좋겠다.



◎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열정의 빨간빛깔 박정수

자신의 갈 길을 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친구입니다. 때로 가혹한 완벽함을 추구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이 분명한 목적성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친구이지요.

Q. 2단계 하면서 본인 강점(정열, 노력)이 잘 드러나던 에피소드는?

A. 제가 인터뷰 하던 분이 정정희분을 찾는데 노력을 심히 기울였다. 인터뷰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바쁘셔서 인터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다. 질문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만 받게 되었다.

Q. 결과발표하는 거 봤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은?

A.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장님도 다른 요리책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임실에서 만든 된장도 있고. 모방을 하라는 말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상상하라는 말. 요리를 하다보면 직접 하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어

떻게 만들지 상상하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요리 대회를 나갔는데 도움이 되었나?)
적용을 해서 60명 정도에서 20등을 했다. 원래는 30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Q. 1단계 기억나는 점?

A. 1단계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들었는데 얻어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 분이 전라북도 농촌 지역을 관리하는 분인데, 이론적으로만 하셔서 내 꿈하고는 맞지 않았던 거 같다. 전북지역에서 오신 유명하신 분들, 공부하는 방법도 있었고, 바리스타도 있었는데 삼인행에서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요리부분에서 선명해진 거 같다.

Q.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소개를 한다면?

A. 내일 상상프로젝트를 설명해주고... 좋은 경험을 했던 부분을... 원장님이 해주신 말...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다. 상상을 해라... 그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Q. 예전에 경험이 있나?

A. 없었고, 동아리 활동만 했었다. (취미활동과 꿈이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한길만 고수하는 거 같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반대하시더니 하는 거 보시더니 지금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다. 내일상상프로젝트하는거 포함해서.

Q.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가다가 실연이 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지금의 경험이 다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될까?

A. 힘이 될 거 같다. 책자를 만드는 거를 했잖아요.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Q. 꿈이 바뀌거나 발전할 수 있겠지만 꿈을 펼치는 장이 순창이 거점이 될 수 있겠는가?

A. 일단은 순창은 장류로 유명하잖아요. 내가 양식을 전공할거라 장류랑 양식을 퓨전으로 해볼 생각이 있다. (현명한 생각같다. 물고기는 큰물에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같다.)

Q.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A. 앞에서 말했지만 상상을 하고, 모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최용길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같은 친구입니다. 따뜻함과 배려, 의지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네요.

Q. 이번 활동을 통해서 잠재력이 발현됐나?

A. 같이 활동할 때. (어떤 상황?) 인터뷰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 자기소개서 쓸 때 독특한 문장을 표현한다던가. (창의적,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거 같다.)

Q. 꿈 질문을 하면?

A.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 (수식어가 중요한 거 같다. 명확한 거 같다)

Q. 1단계 어땠나?

A. 처음해보는 활동이라, 서로 둘러앉아서 자기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을 말하고 종이에 적어서 팀별로 공통된 걸로 하고 개인별로 조별로 하던 게 참신하고 특이했다. (학교에서는?) 안 해봤다. (활동이 의미가 있었던 거 같다. 무엇을 깨달았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용길이를 생각한다면 그림이 그려진다.)

Q. 생각나는 에피소드?

A. 인터뷰할 때 같은 팀 정수랑 같은 날 인터뷰를 가는데 순창중 기가(기술과 가정)선생님이랑 인터뷰하는데 옆에 선생님 아이도 있었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빴던 게 기억이 남는다. 생각보다 얻은 것이 많았다.

Q. 몰랐던 것에 대해 알게 됐고, 사람에 대한 성찰에 대한 성찰을 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관점을 갖는 과정을 밟아가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로, 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가?

A. 답답하다. (답을 정해놓은 것이 답답할 거 같다. 평생직업이란 개념도 사라지는 마당에.)

Q. 다른 친구들한테 이 프로젝트의 장점을 뽑아서 말한다면?

A.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고정관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게 된 점.

Q. 지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생각은?

A. 만약에 여기서 꿈을 펼친다면 교사로.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 이해력이 있고, 통찰력도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고 싶나?) 할 때는 하는 사람. (삶에 치여서 아등바등 살지 않고?) 여유도 있고. 삶에 가치를 두는 사람.

Q.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나?

A. 우선 진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 (전달해주는 것? 도움을 받았던 것) 도움을 받은게 하나도 없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성장이 있던 거 같다. 또 하고 싶다.

Q. 3단계는 뭘 중점적으로 하고 싶나?

A. 팀별로 사람들이랑 하는데 친구들하고 의견이 맞으면 그 의견을 조합해서 섞어서 프로젝트만 들어서 하고 싶고... 과학동아리다 보니까 과학 쪽으로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05_ 매개자 이야기

◎ 이상은 멘토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전주YMCA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순창에 있는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힘들게 진행했던 부분이... 아이들과 2단계를 할 때 한 명씩 진로를 찾고, 만나고 싶은 멘토, 스승을 정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섭외하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아이들도 자기를 찾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런 분이 나를 만나줬다는 점이 큰 의미였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에 대한 발견,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했구나 하고 발견을 하고, 멘토들이 자신들을 정성으로 만나는 걸 경험하면서 어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진로뿐만 아니라, 삶에서 긍정적 경험을 했던 거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버거워보였어요. 2단계는 그나마 방학을 끼고 해서 시간이 괜찮았는데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매끄럽지 않았어요.

3단계 내-일을 찾는 게 너무 짧고, 아이들 시험기간이랑 겹쳐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갖고 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의견을 듣고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힘들게 과업을 수행해나가기만 하는 것은 반대하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행평가도 아니고 생기부에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것 때문에 함께 하려하지 않는 애들이 많은데,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로=직업’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진로체험 이런 게 획일화 되어있는데 유행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진로와 관련되어 만나면 하나의 진로를 정해놓고 대답하는 형편이에요. 진로가 없으면 계속 물어보고 그제 귀찮으니까 하나 정해놓고 대답하는. 진로라는 게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진로를 설명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나는 어릴 때 마냥 즐겁게 다녔어요. 내 시대는 진로라는 말이 따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나중에 뭐 될래? 정도.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밌게 노는 게 중요했어요. 서클 활동하고.

이 프로젝트의 효과성은 제 각기 의미가 다른 거 같습니다. 1단계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좋았어요. 처음 하는 경험이었거든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는 시골지역 순창이라는 한계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목표였어요. 대전을 한번 가더라도 차가 빨리 끊기는 제약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갔다 온 것만으로 힘들었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돈도 아껴 쓰려고 하고 밥 먹는 것도 돈 아껴 쓰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가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과학캠프에 초청하는 선생님들이 무척 대단해 보였나봐요. 카이스트 출신들 이러니까 놀라워하고 신기해했어요. 이런 분이 순창에 오셨다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들에게 직접 홍보하는데 생기부에 올라가냐는 이런 말을 들으니 답답해하더라고요. 잘 안되니까 답답해하면서 진행하는 게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 같아요. 간식 하나도 다 스스로 준비했으니까요.

일에 대한 힘들?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 과정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직접 움직이는 것.

아이들이 직접 찾게 하는 것? 실무자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것. 짜여 있는 것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탈피했다는 것이 기존 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계획 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순창은 ‘진로=직업’,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도 들어보고 찾아도 보고 해야 한다. 지역이 살만한 곳, 크면 떠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

◎ 양주봉 멘토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교사)

저 또한 처음 참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참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상상학교의 웹사이트나 sns에 올라오는 정보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 일부를 알수있었으며,

사람책 또한 그때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정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사람책이 무엇인지, 상상학교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진로프로젝트란 무엇인지 함께 듣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며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주나 완주와 달리 참가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강의를 듣고 사람책을 만나면서 저 또한 학창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참여 청소년들과 더불어 저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기간이 길고 단계가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지속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다들 처음에 의욕적으로 접근 하다가 개인일정, 학교 일정 등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중 멘토를 섭외하고 일정을 잡아 삼인행을 하러 가야 하는데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많은 우리 친구들이 서로의 개인 일정만 내세우는 바람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하고 잡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 팀들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후에야 2단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득이하게 멘토 분이 학기 중 평일에만 일정이 된다고만 하여 공문을 학교에 보냈는데 공결처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의 담임 선생님과도 여러 번 통화를 했으며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결처리가 아닌 일반 조퇴 등의 처리가 되어 학교의 입장을 알 것 같으면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2단계 : 여러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고승언입니다. 제가 처음 문화의집에 와서 알게 된 몇 안 되는 친구 고승언, 친해지기 전 제가 전해들은 고승언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한부모가정, 성실하지 못한 생활태도, 반반한 얼굴로 여학생들을 홀리고 다닌다는 어떠한 소문. 그러한 선입견에서 만나게 된 친구 고승언입니다. 문화의집과 집이 가깝고 노는 걸 좋아해서 자주 만나게 되고 상상학교까지 함께 하게 된 친구입니다.

만약 승언이와 상상학교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도 전 승언이를 지금의 승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학교 2단계를 함께 하면서 보여주었던 승언이의 적극성, 열정이 너무 좋았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일은 책임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마술에 대한 강한 열정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삼인행을 진행할 때 다른 친구들은 활동에 관심도 별로 없고 흥미를 잃어 갈 때 쯤 승언이는 늘 친구들과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고, 같이 하자고 지속적으로 친구들에게 말했으며, 궁금한 것도 바로 바로 물어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기억하면 승언이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변한건지 아니면 내가 선입견으로 승언이의 모습을 못보고 있었던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고등학생 팀 중에서는 용길이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말이 많이 없고 친구들의 의견에 항상 예스를 외치며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은 그런 친구로 기억됩니다. 물론 이 기억은 상상학교를 하기 전 몇 번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느낀 것 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진

로에 대한 고민, 대학에 대한 고민, 여러 고민을 할 나이에 관심분야자체도 생소한 기술교사라고 했던 친구입니다.

사실 기술교사라는 것도 2단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용길이와 제가 찾아낸 단어입니다. 용길이에게는 뚜렷한 직업이라든지 대학교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고 그 가르치고 싶은 것은 과학이나 기술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나, 선생님, 강사는 아니랍니다.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며칠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개인적인 이야기, 집안이야기, 학교이야기 등, 함께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확 친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삼인행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서서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용길이를 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은 기술교사를 보면서 비로소 자기소개서와 함께 멘토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창직지원

내-일 방방 프로젝트

완주에서 재능을 찾아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만들고, 찾아가 보자.

재능을 찾아내거나 기능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일'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삼삼공작소

01_개요

목적 :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든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함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멘토 : 건축팀 - 열도사, 백발, 박영실(동네 목수로 소품부터 인테리어, 집짓기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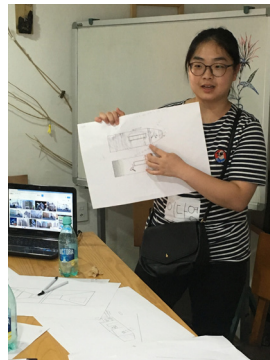
텃밭팀 - 김다솜, 진남현, 이재민(자연농으로 농사짓는 청년농부들)

참여자 : 김강산, 김바우(삼례중2), 김형후(삼례중2), 김형준, 정승우(삼례중2), 서승연(고산중1), 정혁규(고산중1), 강진석(고산고1), 김유민(고산고1), 박서영(고산고1), 이다영(고산고1), 이은지(봉서중1), 박나현(완주중1)

02_삼삼공작소 만드는 과정

1) 삼삼공작소 상상하기

건축팀과 텃밭팀이 함께 상상을 합니다. 디자인은 그저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선 주제를 정해 보세요. 빛, 사람, 휴식 등.. 그 주제에 맞춰 디자인을 해 봅시다. 우리 생각을 모아 어떤 주제로 어떤 디자인으로 공간을 꾸밀까요?



2) 삼삼공작소를 만들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선 몸부터 풀고 시작해 볼까요! 나무를 칠하고, 벽을 칠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뜨거운 여름 덥다 더워.



페인트를 칠해요~~ 이걸 언제 다 칠하나~~



텃밭은 퇴비창고도 만들고 발도 슬슬 형태가 나오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텃밭 모양이 안나오네 ~ 텃밭 이름을 바꿔요~~

03_집들이에 초대합니다.



#

사회자: 이다영

안녕하세요. 삼삼공작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삼삼공작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삼공작소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이 텃밭체험 및 목공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키키 선생님, 토리선생님 그리고 건축디자인팀의 열도사 선생님, 영실 선생님, 백발 선생님. 퍼머컬처디자인팀의 다솜 선생님, 남현, 재민샘 등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삼삼공작소에서는 총 10명의 학생들이 총 네 번의 작업을 함께 하였는데요. 8월 20일, 27일. 9월 3일, 9월 10일 총 4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명의 성격, 개성 모두 각양각색인 아이들이 참여한 동기가 달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상상학교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되게 감명을 받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직업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이러한 동기로 참여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고, 작년에도 이 직업 교육을 해서 올해도 참여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8월 20일은 많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친해지길 바라면서 아바타 자기소개도 마치고 서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팀과 퍼머컬처디자인 팀으로 나누어서 건축디자인은 컨테이너 외벽을 꾸미기 위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종이에 그려본 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의견을 합쳤습니다. 퍼머컬처디자인팀은 컨테이너 주변 발을 꾸미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3주에 걸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 매번 준비운동을 하고 오늘의 파티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주셨지만요^^ 이제 건축디자인팀과 퍼머컬처 디자인팀 대표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퍼머컬처디자인팀의 서승연 친구가 아름다운 이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친구가 사진으로 건축디자인팀의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축디자인팀 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자연에서 자연으로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자연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들은 쓰고 버리기만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이용해 재활용 예술작품을 만들었습

니다.

첫 모임은 건축디자인팀, 퍼머컬처 디자인팀으로 조를 구성하고 그 조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건축팀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각각 디자인한 것을 모아 하나로 함축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색을 가지고 나무를 칠하고, 흰색 페인트로 컨테이너 바깥부분을 칠했는데 엄청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매우 어려워져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은 정말 너무나도 긴 하루였습니다. 시험보기 전 벼락치기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때 색칠한 나무를 조립하고, 합판위에 그림그릴 사람 틀도 그리고, 직소라는 기계로 합판도 잘라보고, 다른 합판을 색으로 칠하고, 아침부터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4_우리들의 말

◎ 이다영(고산고등학교 1학년)

Q. 주변에 이런 수업이 있나요?

A. 이렇게 안하고 한번 듣고 강의식으로 하는 것 밖에 없어서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제가 전주시 사는데 학교에 와서 그냥 강의 한 시간 하는 것. 유명한 분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게 많다. 나중에 개설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주제가 더 있었으면?

A. 건축디자인, 그냥 목공으로 만드는 소품이나 DIY도 하면 좋겠어요. 학교 내에 목공실은 있어요. 이번 교장 선생님이 많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1주일에 한번 동아리 시간에만 개방이 돼요. 2학년은 목공수업이 있어요. 그때만 개방이 되고, 평상시에는 잠겨있어서 못해요. 담당 선생님도 계시기는 한데 순희 선생님이랑 몇 번 안계세요.

Q. 고산에는 서쪽숲이라는 집짓는 지역사람들이 일도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를 찾고 싶다. 만약 기회가 되면 그런 곳에서 인턴십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더 관심이 생기면 그런 실습, 실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 지금은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인데 실제 프로그램이 생기면.

A.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고2가 딱 좋을 거 같아요. 1학년 때 맛보기로 하고, 2학년은 방학기간 중 인턴십 해보고, 3학년 때 꼭 해본다면 1년간 더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강진석(고산고등학교 1학년)

Q. 삼삼공작소 작업을 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뭐였어요?

A. 직소기 같이 처음 보는 기계를 사용해서 직접 작업을 해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Q. 어떻게 주제를 내고 그림을 구상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A. 2개 팀이 있었는데 서로 도우면서 하다보니까 좋았어요.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어떤 요소를 할 것인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생각하고 그랬는데, 딱 정해놓고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을 배웠어요.

Q. 삼삼공작소처럼 동네 삼촌, 누나들과 같이 직접 기계를 다루면서 목공을 하고 텃밭을 만드는 수업이 있나요?

A.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직접하지는 않아요.

Q. 학교에 삼삼공작소처럼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수업이 개설된다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어요?

A.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장기프로젝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을 가거나 강사가 계속해서 온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동네에 서쪽숲같은 목공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에게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A.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것 같아요.

Q. 방학때 실제 현장에서 인턴십을 해본다면요?

A. 한달은 힘들고 일주일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달을 다하면 방학이 사라지니까 (웃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 박나현(완주중학교 1학교), 서승연(고산중학교 1학년)

Q.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 어때요?

A. 더 깊고 한데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직접 몸 쓰면서 체험하고 (동네 이모, 삼촌 등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니까) 그냥 편해요.

Q. 이번에 수업이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A. 네, 재밌으니까요. 힘들어도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어요. (저희가 만든 텃밭 중에)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평화의 텃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Q. 마지막 날 삼삼공작소 오픈식 때 사람들 앞에서 텃밭을 설명했는데 어땠어요?

A. 텃밭 만들 때 대충대충 했는데, 앞에서 설명하니까 공을 가로챈 거 같아서 미안했어요. 다음번에는 손이 안다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05_멘토의 한마디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키키

공간을 짓는 게 건축만 생각할 수 있는데 황무지 같은 땅에서 공간도 분할하고 길도 내고 뭔가를 짓고 하는 전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다. 볼모지에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도 지금의 과정이 길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삼삼 공작소 마지막에 자기가 발표하는 자리도 좋았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애들 나름대로 아이들의 시각대로 정리를 해나가서 그것을 표현해서 좋았다.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만의 각자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고마웠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참여율이 높고, 그렇게 2단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경우 3단계로 갔다. 부모님을 통해서 온 아이들은 역시 3단계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팀과 텃밭팀으로 나눠 진행하면서 팀워크를 경험해 보게 되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서로 협력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의 보람도 느꼈던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삶 속에서 중요한 관계의 힘을 키워줄 것이다.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는 것이라 단순히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4. 우리동네문화기획단: 로컬푸드 요리사

01_개요

목적 : 제철식재료로 요리하기. 로컬푸드와 텃밭재료를 이용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과 음식을 나누자.

멘토 : 최수원, 이종란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자기 먹거리를 자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기가 텃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참여자 : 정주은, 이해솔, 오효은, 전도희, 이채은, 이유민, 신재영, 정민찬, 온서진, 박재형, 이재원, 김라운, 박기연, 이모세(고산중1)

02_왜 제철재료로 요리를 해야할까?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철에 맞게 햇빛과 바람과 물과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 자식 농산물

계절에 맞게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수많은 야생풀과 과일을 먹고 산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일도 적게 하고 여유롭게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살 것이다.

계절 식재료란?

계절에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다. 봄에 나오는 것을 봄에 먹는 것이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하며 생명력을 키운 쑥이나 머위나 달래, 냉이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으며 그 생명력을 먹고 일 년을 살아낼 기운을 얻는 것이다.

여름에 나오는 것은 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찬성질의 농산물이 많다. 보리밥, 참외, 수박, 오이 등. 가을엔 여름 햇빛을 충분히 받아 비타민c가 많은 밤, 대추, 사과, 배, 곡식 등이 풍부하다. 겨울엔 나오는 농산물이 많지 않지만 봄이나 가을에 말려놓은 고사리, 취나물 말린 가지, 말린 호박 등 묵 나물과 곡식들, 김장김치, 청국장 등 저장성 농산물을 이용한 것을 먹으며 일 년 내 땀 흘리며 일하였으므로 다음 해에 일을 하기 위해 농부들은 몸을 쉬여주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계절이다. 계절식 재료로 음식물 해먹는다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몸도 지키는 것이고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다.

03_ 요리하는 과정

밭으로 나가 직접 식재료 가져오기

아 더워요~~ 따가지고 소스 만들거야. 토마토 소스.

대충 따가지고 들어오는데..더 땀으면 싶었는데 내가 봐준다..



씻고 다듬고 이런 것도 요리야. 요리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야.

요리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길 바라. 사실 하자면 심는 것부터 하면 좋겠는데(웃음)



칼질하기/요리하기

고양이 손이야. 안 베려면 고양이 손이야.. 잘해~~

역시 지 뭍을 하는 구나. 안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뭍을 단단히 하는구나.



굽고 볶고 뒤집고 굽고, 뒤집기가 정말 재밌다.
후라이팬을 이렇게 올려~~ 휘익~~ 부침개가 뒤집어 진다~
더운데 뒤집기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만든 것을 맛있게 먹는 것도 요리에 중요한 과정.
우리는 이렇게 맛나게 함께 먹기 위해 요리를 하는 거야~~



리코타 치즈, 주먹밥



감자치즈샐러드



지라시초밥



04_결과공유회: 로컬요리사 시식회



재형, 기연이 삶고 도희는 소스에 버무려서 스파게티를 완성
판매는 재영, 민찬, 친구 태평

#

도희 : 너무 많이 삶았잖아.

귀현 : 안에 끓어서 심이 있으면 덜 삶아 진거예요. 너무 흐물흐물해졌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정신없이 삶고, 도희는 볶고. 아이들이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시연과정이 힘들어 보였다. 아침에 비바람이 그치고 더워져서인지 힘들어서인지 땀을 찰찌 흘리고 있었다.

#

맛 볼 게 없어요. 속는 셈 치고 사보세요.

떠리로 팔아. 싸게 팔아 싸게.

모두 다 하는 사회생활

선생님 : 너희 손 씻고 만들었어?

학생 : 손 씻고 만들었어요. 선생님 사가세요. 맛있어요.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막판에 남은 소스를 팔기위해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소리를 지른다. 친구들도 덩달아 신이 났는지 떠리를 외친다. 주변의 친구, 동네 어른들, 선생님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주변의 어른들도 재미삼아 흥정을 해보기도 하고 물건을 산다. 이런 시간 자체가 재미다.

#

60명 만들었어요. 고기 38개, 야채 24개. 다 팔렸어요.

10% 씨앗에, 45%는 기부, 45%는 우리가 나누기로 했어요.

판 물건의 개수를 노트에 적고, 거스름을 내 주는 손이 아직 서툴다. 그래도 집중하는 모습이 귀엽다.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 벌었다며 계속 세고 있다. 전부다 팔고 나서 씨앗머니랑 현금을 세는데 엄청 집중한다. 들어간 돈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씩 나눠 갖고 계산은 서툴지만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신이 난듯하다.

05_우리들의 말

신재영, 정민찬, 박재형

Q.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제일 첫 시간에 감자 구운 거요. 전체적으로 다 기억에 남는데 리코타 치즈 만든 것도 재밌고 신기했어요. 칼질, 썰기, 뒤집기 등등 특히 한 번 하면 놓을 수 없는 뒤집기 (웃음)

Q. 만약에 진로 관련해 이런 수업이 있다고 하면?

A. 해보니까 재밌어요. 요리할 때 뿐아니라 먹을 때도 같이 얘기하고 즐겁고요.

Q. 토마토도 따고 감자도 캐고 어땠어?

A. 좋은 경험이었어요. 따는 법, 씻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부터 요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GMO도 새로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친구들한테 아는 척도 해요.

Q. 기존의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A. 많이 없었어요. 직접 해보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Q. 가르치는 분이 유명한 셰프가 아닌 동네 이모들이었는데 어땠어요?

A. 더 친근감 있었어요. 괜히 또 초면이면 어색했을텐데 편안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이라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06_멘토의 한마디

◎ 최수원 멘토 (완주 텃밭농부)

나는 요리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보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이 습관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만들고 싶어지면 자연스럽게 해 먹을 수 있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다. 요리사가

되든 안 되든 우리 모두 하루 세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요리하는 것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요즘은 먹방, 맛집 등 사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대다. 자기 음식을 자기가 챙겨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많아서 의외였다.

Q. 제철, 토종씨앗, GMO 강조하신이유가?

A. 제철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한겨울에 가지를 찾지 말고, 뭘 해 먹어야겠다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슨 재료가 있는지? 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가지가 필요할 때 슈퍼에 가서 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해먹지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재료가 있는지?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지구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원래 시작이 어딘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직업도 진로도 자기 삶을 위해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5. 우리동네문화기획단: 우리를 노래해요

01_개요

목적 : 우리들의 이야기로 노래해요. 자신들의 이야기로 가사를 써서 음악을 만들고 직접 창작한 음악을 마을축제에서 공연하자.

멘토 : 정상현, 김은수, 김원진 (음악을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고산에 터를 잡고 컨테이너에 합주실을 만들어 지역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참여자 : **WBR** - 김주안(고산중3), 김성환(고산중2), 오형택(고산중3), 박태준(고산중2), 이승배(고산중3), 이수현(고산중3)

4ever - 임동우(고산중1), 박동현(고산중1), 신재영(고산중1), 김준경(고산중1)

02_함께 노래하는 시간



직접 악기를 만지다



곡 만들기 / 녹음실 작업

03_우리의 노래



WBR

My Way

작곡: 김성환

작사: 김주안

편곡: 김성환

교실의 문을 열면
네모난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내 꿈의 조각들이
이제는 모르겠어
내꿈이 뭐였는지
오늘의 학습목표
다들 교과서 펼쳐

날 좀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MAYDAY
인생 개쌍 My Way 내 생각대로 할거야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는 My Way

날 좀 내버려둬



4ever

놀자

작곡: 4ever

작사: 4ever

놀자 놀자 미친듯이 뛰어놀자
놀자 놀자 토할때까지
놀자 놀자 하늘달게 뛰어보자
놀자 놀자 숨 찰때 까지

무료한가요? 지루하지 않나요?
공부만하다 죽느니 놀자 놀아보자
(미친듯이)

숙제는 하고 노니? 공부도 하고 놀아라
놀아도 결국 인터넷 놀자 놀아보자
(미친듯이)

놀자 놀자 미친듯이 뛰어놀자
놀자 놀자 토할때까지
놀자 놀자 하늘달게 뛰어보자
놀자 놀자 숨 찰때 까지



떨리는 공연. 고산지역 학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열광했다~~

04_우리들의 말

임동우, 신재영, 김준경

Q. 밴드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김재형: 형이 기타를 치는데 멋져보여서 보러 갔다가 드럼이 있길래 드럼 해보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하게 되었어요.

임동우: 아는 형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신재영: 호기심 때문에 하다가 밴드까지 하게 됐어요.

Q. 노래도 직접 만들었어요?

신재영: 네. 자유롭게 놀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놀고 싶은데 할 건 하고 놀자는 거예요. 저희가 놀때 인터넷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밖에서 뛰어놀자, 그런 내용이에요.

Q. 동네에 밴드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선생님이 있으니 어때요?

모두들: 친근하고 편해요. 자주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아요.

Q.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한다면 어때요?

모두들: 같이 상의도 하고 멜로디도 만들고 악보도 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음 잘 되는 곳만 있으면 좋겠어요(웃음)

Q.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들: 별거 아닌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잠깐 똥팡거리다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꼭 만들고 가야지! 이런 거 못 느껴보고 갔을 것 같아요



내-이 차기 2차 프로젝트



1. 밥! 생명의고리잇기

00_여행을 떠나다

밥!생명의고리잇기 팀은 1,2단계 활동을 토대로 향후 사회적경제 동아리(협동조합)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타지역 또래 청소년들의 진로 및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견학과 섬의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동아리(협동조합) 활동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2명은 견학을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또래 청소년의 진로 활동을 위해 일정에 맞추어 이동연, 김효민, 신승철, 정대영, 이동연, 구윤근 청소년들이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청년프리마켓(부산 서면)에 방문하고, 부산 탈학교 동아리 ‘코이’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말이죠. 간 김에 국제시장, 강동시장, 보수동책방골목, 용두산공원, 해운대 마린시티도 둘러보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명주 부산YMCA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래 청소년 진로활동을 견학하기 위해 전희원, 이현진이 뭉쳤습니다. 역시 부산이었는데요. 부산 청소년사회적기업 더코이 작업장을 방문하고, 더코이 청소년들과 대화 및 견학활동, 사회적기업인들과 청소년 사회적경제활동의 방향성을 논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국제시장, 강동시장, 해운대도 다녀왔지요.

현지 멘토 : 정명주 부산YMCA 청소년수련관장 / **박하진** 더코이 대표

세 번째 팀은 서울로 또래 청소년 진로활동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정재윤, 김은서, 라은혜, 조은정, 이평안 청소년들은 하자센터(서울시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직업청소년동아리, 오딧세이등 견학. 하자센터 프로그램 견학, 이태원(지구 청소년으로서 외국인과의 대화, 한복을 주제로), 서울 홍대거리, 남산등 서울문화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손유주영팀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 지금, 만나러 갑니다

01_순창까지 찾아온 작은 과학캠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팀 중에서 순창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2단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을 베이스로 두고,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견문을 하고, 학교에 동아리 혹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과학여행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우리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 관련 작은 상상학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 후에는 순창에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진로로도 연결되는 동아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를 위해 견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13명이 참가했는데요. 과학이라는 주제에 맞게 대전 국립과학관을 방문하고, 과학 분야의 전문 멘토와의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최용길, 서명원, 박정수, 김정수, 신민규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디자인을 주제로 한 팀입니다.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기법을 통한 새로운 건축기법과 디자인을 보고 시각적인 안목을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건축박람회와 마테프 홈 리빙 페어, 디자인 코리아 2016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진로 관련 기업 또는 대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순창 참가자 전원이 과학분야의 대학교 또는 기업체 방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 시 : 2016년 11월 26일(토), 27일(일)
장 소 :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주 관 : 과학동아리 구상원 12명
대 상 : 강좌별 청소년 10명~20명 내외 / 총 40명 이상
내 용 : 과학 분야별 강의와 체험, 자유질문과 토론
11월 26일(토) 11시 ~ 13시 : 화학, 생명분야(마운정 교수)
11월 27일(일) 14시 ~ 16시 : 기계(항공) 재료분야(김은호 교수)
: 전기전자, 물리, 에너지분야(김대석 교수)

문 의 : 순창청소년문화의집(063-652-2301)



02_멘토의 이야기

◎ 양주봉 멘토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교사)

3단계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단계를 참여한 아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3단계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중학생 친구들을 함께 하지 못함에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3단계는 기존 2단계를 함께한 고등학생 친구들 3명에 문화의집에 결성한 과학동아리 멤버들로 구성을 하여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는 뚜렷한 활동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정해야 했기 때문에 첫 회의부터 많은 의견과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3단계는 개인 활동, 소그룹 활동, 전체 활동 등 큰 파트로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3단계는 처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참가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해서 기획하고 계획하여 실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참가 청소년은 1단계, 2단계를 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상상학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으로 참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문화의집에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만든 과학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인원도 약 15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회의의 횟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많은 인원 중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몇 명이 체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참가하고 있는 전체 청소년들에게 혹시 시간이 안 되거나 회의를 통해서 본인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기까지 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도 그만두겠다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또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정할 때 의견제시도, 실제 활동을 하는 날에도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개인 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활동으로 순창에서 과학 캠프를 진행 할 때까지도 전체가 다 함께 하지는 못했으며, 과학캠프 당일에도 오지 않는 청소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들에게 나는 무엇이

어떻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연결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무슨 소용일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상상학교를 단계별로 참여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며 함께 활동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3단계는 크게 개인 활동, 소그룹활동, 단체 활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3단계 참여 청소년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과도 이과생들이었습니다. 흔히 제가 생각하는 이과생이라고 하면 공대생만을 떠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1, 2차 전체 회의를 참여하고 진행하면서 실은 고등학교에서 과만 이과라는 것이지 관심분야는 정말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과생이기 때문에 모두 공대생이나 공대분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건축, 요리, 생명, 금융,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참가했던 청소년들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어느 친구들을 접하거나 대할 때 내가 먼저 형태를 정하고 만나거나 선판단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너무 틀에 박힌 좁은 사고로 청소년들의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폭넓게 기존의 생각에서 탈피해 다양한 접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참여율이 혹은 참가자의 적극성이 없으면 참으로 힘든 프로그램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참가자의 대부분이 학생임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공부, 시험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단계의 경우 참가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다가오는 기말고사였습니다. 그 무슨 활동도 기말고사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러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하면 더 많은 참여율과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진행했다고 하여 그 친구들이 벌써 직업을 정하고 대학의 과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존에 했던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틀에 박힌 진로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똑같은 형태로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화된 진로라고 해도 미용,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이 머무는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틀이 정해지기 보다는, 직업에 한정되어 접근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하고 결정해나간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직업이 좋을까 어느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가 아닌 내 삶을 사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무엇일까 이 길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며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기성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을 걱정하며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긍정의 에너지로 그들이 하는 행동, 생각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로프로그램으로써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직업이 좋은지의 좁은 의미보다는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의 넓은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만들고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결국에는 내가 결정권자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로란 단순히 직업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지 무슨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 것인지의 단순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진로란 단순한 직업을 정하는 문제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결정할 것이며 실행할 것인지의 큰 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어른들이 정해진 틀이 아닌 스스로 고민해서 찾은 틀을 직접 짜보는 것이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사회가 변한만큼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다가올지 모를 미래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현재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순창이라는 곳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 타지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습니다. 보통 순창의 청소년들은 내가 커서 나중에 순창에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큰 도시에서 직업을 갖고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순창에서의 밝은 미래보다는 순창보다 더 큰 도시 더 발전된 도시로 가길 원할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순창에는 옥천인재숙이라는 기관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틀에 박힌 입시교육만을 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유명한 대학을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직업을 갖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창에는 더욱더 젊은 청년들이 떠날 것이며 한층 더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순창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농촌지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성적순의 1등 2등 3등의 주인공을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조연, 엑스트라가 되어가는 세상, 사회가 현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며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을 등지고 타지로 더 큰 도시로 나가기보다는 순창의 지역사회에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순창에서 희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다음세대에 또 다음세대로 이어진다면 분명 순창은 작지만 강한 지역사회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진로교육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란 말 그대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거나 미래를 체험하는 형태가 됩니다. 마치 조기교육처럼 청소년기에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조기체험해보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엇이 어떠한 형태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상황에 우리는 진로교육이란 이름으로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예로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유명한 대학 4년을 졸업한 청년이 취업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준비하며 공부한 청년이 취업이 안 된 것을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취업이 안 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제도적인 큰 문제인데 마치 진로교육을 잘못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못해서 지금 네가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진로교육을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를 미래만을 생각하며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상상학교 강의 내용 중 현재 있는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하는 강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약 70%이상이 사라진다니 저 또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실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그것입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결이라든지 체스대결에서 사람이 결코 인공지능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린 사람의 1승에 환호하였지만 현실은 인공지능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더 발전된 미래가 다가오는데 고작 잡월드나 키자니아의 좋은 시설에서 일회성으로 직업을 체험했으니 나는 진로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기업의 브랜드를 체험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활동에 불과 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좀 더 많은 힘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진로교육을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지금 현실의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문제 폭력, 왕따, 학업, 성적, 수능, 알바, 이성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 수많은 현실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인데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경쟁사회가 아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해 내가 더 위에 있어야 해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인재가 남아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합니다.

완주에서 내일찾기!!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기획해 보자.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필요하고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가져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지역에 대한 이해와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상상하는 멋지지만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나와 관련된 내일을 상상하자.

3. 동네방네요리조리

01_개요

참여자 : 완주군 고산중학교, 고산고등학교 및 금산간디학교 청소년 총 10명

내용 : 푸드카트 제작 & 요리레시피 개발 프로젝트

'동네방네요리조리'는 학교, 지역사회마켓 등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주에서 벌어지는 문화장터, 가족캠핑, 지역축제 등에 단순 방문객이 아닌, 행사주체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02_요리조리 과정

1차 우리 함께 무엇을 할까요?



재능탐색 2단계 목공팀과 요리팀이 만났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무엇을 같이 해 볼까요? 붕어빵?
스무디? 스무디는 너무 추워. 날씨가 추워질 걸 대비해 고민해 볼까요? 와플과 핫초코 그리고 모과차
당첨

2차 푸드카트를 만들어요



자 푸드카트를 만들어 볼까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
이동하기 편하고 가볍게요.. 튼튼하기까지 하면 좋겠죠.

3차 직접 모과차 담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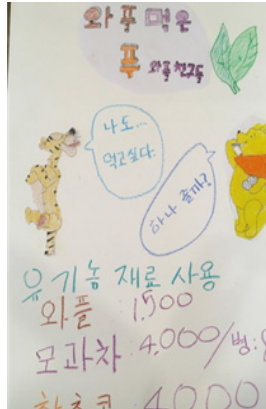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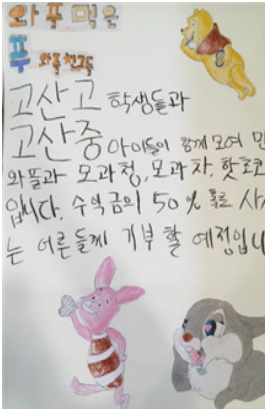
모과차. 왜 우리가 모과차를 하자고 했을까? 3박스를 다 써느라 우리 손도 썰었네
장장 4시간동안 썰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4차 와플 만들기



오늘은 와플도 한번 만들어 보자. 도희의 레시피대로!
맛이 없네!! 두 번째 와플 도전. 인터넷에 나온 레시피 그대로인데 왜 맛이 없지? 황금비율을 찾아라

5차 홍보 포스터 만들기



우리 홍보물도 만들자. 재영이가 그림을 잘 그리네.

03_동네방네요리조리 판매 행사



#

와플 재료가 다 떨어져 간다.

바로 옆 “담벼락”으로 뛰어간다. “꿀이 몇 그램이었지?”

네 번에 걸친 실험 끝에 발견한 와플 반죽의 황금비율에 맞춰 반죽을 만든다. 이젠 좀 익숙해 졌나 싶은데 아직도 비율이 헛갈린다. 계산도 헛갈린다.

#

잔돈이 없어. 왜 와플 가격을 1500원으로 했을까? 동전이 없어(웃음)
이렇게 된 것 "와플 하나 더 드시면 안돼요?" 아는 사람이니 망정이지 하나 사려는 사람에게 하나 더 강매하는 모양이 되어버렸다.

#

유기농 설탕이랑 버터,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저희는 안먹어요(웃음) 만들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와플 냄새도 맡기 싫어요.

#

트럭타고 홍보하러 갑니다!
와플이랑 모과차, 핫초코도 팔아요~ 좋은 재료로 만든 100% 유기농이에요 어서 사러 오세요~
차가운 날씨에도 트럭 뒤에 올라 타 열심히 홍보합니다. "고산시장 한바퀴 돌고 올게요~"

4. 시간을 잡는 소녀들

01_개요

참여자 : 권오민(고산중), 권오영, 문은혜, 심소희, 임예빈(고산고)

내용 :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완주'라는 곳의 지역적 특색을 스스로 찾아 그들만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잡지를 만든다. 또한 청소년 세대와 중년·노년을 포함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세대를 잇고자 한다. 팀원 5명이 역할을 나누고 멘토는 섭외와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며,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한다.

02_시잡소를 만들기까지

#

2호를 만들기 위해 처음 가을에 만났어요. 2015년 1호는 언어가 주제였는데.. 2호에는 음식, 화장을 할까? 옷차림에 대해 해보자.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자.

#

인터뷰 할 사람들과 장소를 선정하는 일

#

주요 인터뷰



흰옷만 입고 다니는 어르신과의 인터뷰. 단지 패션의 특이함 때문에 만났는데, 백의민족의 정신을 돌리기 위한 운동부터 양심되찾기 운동본부까지. 90대 넘은 어르신과 광화문 촛불에 민심과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이 다 되어 인터뷰를 마친다.

흰옷 때문에 찾아갔는데 거대한 이야기를 듣다.



#

1학년때에 비해 바빠져, 학업에 학교생활 잡지 제작까지 지치는 상황. 가을 산책도 하면서 힐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동네에 많은 구제 숲에서 쇼핑도 하고 인터뷰 하고.



#

완주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고산고 대표로 참석. 진로 체험관련 부스로 잡기 만들기 체험을 함. 테블릿으로 삽화를 그리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2호 잡지 모델이 되어 주세요."라는 행사로 요즘 것들의 사진을 실제로 찍게 되었다.

03_시잡소 제작 에피소드

흰 옷만 입는 할아버지를 섭외하게 된 과정

경천가는 버스에서 만나는 흰옷만 입는 할아버지를 인터뷰 하자고 의견이 모아짐. 할아버지를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그 때 운주면 사무장님이 패션이 특이한 분이 있다고 소개해 준 분이 바로 그 분이였다. 우리가 인터뷰 하려던 그분을 바로 찾았던 것.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흰 옷을 입는 남자=백구두, 멋쟁이'라는 생각으로 바람둥이 일거라고 생각해 질문을 준비해 갔다. 당연히 할머니는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흰 옷을 입고 계셨던 것.

알고 보니 ‘백의민족’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태고, 효자 효부, 대동, 양심되찾기 운동본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다. 인터뷰를 학교 끝나고 가야해서 4~6시 넘으니 깜깜해 저서 내려왔다.



시간을 잡는 옷차림

- 흰 옷은 100일만 입으면 좋은 일이 생겨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혹은 주변에 특이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
을 인터뷰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처음 기획했던 주제였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처럼 흰색의
강희목 어르신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의 전말
은 이렇다. 버스를 타고 경천에서 고산을 오가는 입에민은 그 버스 안에
서 최한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통 흰색이었다. 막상 할아버지를 설위하러 했지만 그 후로 버스에서 만
나지 않기 않아 낙담하고 있던 참나 또 다른 흰색 옷을 입으시는 어르신을
어렵게 설위해 찾아갔더니 '운명처럼' 그 분이 나타나신 거다.

예민 할아버지를 버스에서 뵈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 잘 특이하
시다. 흰색 옷만 입는 분도 드문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인터뷰
하러 딱! 와서 보니 바로 할아버지셨어요.

시간을 잡는 소녀 7

04_멘토의 한마디

◎ 장미경 (고산시장 널리널리홍홍 대표)

시잡소 1호와 2호의 차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거 가편집본 나온 거 어제 교정보면서 고려했다고 말하더라. 디자이너가 해서
역시. 1호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2호를 낸 것도 믿기지 않는 듯해요. 작년에는 한명에게 일이 다 몰렸다.
올해는 역할분담도 하고 팀워크로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능글능글한 애는 인터뷰 하고. 꼼꼼한 애는 총
무를 하고 다들 각자 개성에 맞게 했다. 총무인 친구는 내가 뭐 사먹자고 하면 “돈 계산해봐야 한다, 어
떤 품목으로 할 것이냐?” 엄청 꼼꼼하게 잔소리를 한다. 특히 소희라는 친구는 녹취를 담당했는데, 토시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20페이지를 독수리로 녹취를 풀었다. 더 놀라운 건 워드를 못 쳐서 독수리 타법
으로 해온 거죠.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명함도 만들었다. 편집장, 총무, 에디터, 인턴(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등 스스로 이
름도 붙이고, 티셔츠도 함께 만들어 입고 다녔어요.

“팀워크도 생겼지만 그 와중에도 엄청 싸우지. 싸우면서. 그래도 외면하지는 않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산 때문에 2학기부터 시작됐지만, 봄부터 모였다. 1호 때는 내가 주도해서 수업처럼 했는데, 2호 때는 봄부터 틈틈이 기획노트를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준비했어요. 자기들끼리 짜는 걸 재밌어 했어요.

직업과의 연관성을 체감하는가?

슬픈 현실이지만, 은혜는 디자인이나 게임디자인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 과를 간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오영이는 사진 찍으니까 너무 재밌고, 글 쓰는 것이 재밌는데, 그 역시도 전망이 없어요. 재밌는데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간호사나 그런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란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멘토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열린 가능성을 이야기 해주죠. 나중에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아이들의 변화는?

은혜는 여름방학 때 잡지 관련해서 논산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직업, 진로 강의를 해서 그 친구가 같이 파트너로 강의를 했어요. 중학생들에게 사람책 같이 시잡소를 소개해 주는 기회를 가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시잡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쭈뼛거렸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물어오면 자기 스스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짜증나~” 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어요. 아~ 짜증나 하면서 웃고 있는 거죠(웃음).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야기 한 게 너희가 힘들면 바로 바로 이야기 해줘라. 억지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면 그 때 그 때 조정을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디자인까지 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 해서 디자인은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억지로 해서 다시는 안보고 안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은 재끼고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열정을 쏟았으면 해요.

20대가 되면 같이 시간을 잡는 “숙”녀가 돼서 만들면 좋겠어요. 뒷풀이 때 술도 먹고. 그러자고 했어요!

Epilogue

내-일을 그리다

01_포럼 스케치

02_대안, 사례, 과제 등



내-일을 그리다



01_포럼 스케치

내-일상향프로젝트의 결과공유회를 위한 지역청소년포럼이 12월 17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청소년, 청소년활동 유관기관 지도자, 교사, 교육복지전문가들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의 김주영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희망제작소 강현주 팀장님의 인사말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김주영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의 경험이 살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렬한 환호와 함께 등장하신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이선영

경쟁이 아닌 협업 과정을 통해 보통의 진로프로그램과는
다른 포맷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능은 재능일 뿐입니다.
관계 안에서 재능이 추구되어야 가치롭습니다.



전주 YMCA 손유주영

진로는 직업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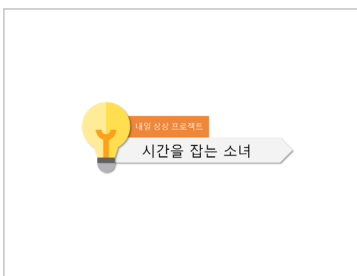
동네방네요리조리팀 승현이

그 동안의 과정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설도 많고, 사연도 많던 팀이었습니다.



시간을잡는소녀 호영이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언어를 소통을 위해
풀이하여 책을 만들었습니다.



→ 시간을 잡는 소녀 1호



→ 참지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는 때빈

→ 참지에 들어갈 삽화를 직접 그리는 소희



→ 윤옥례 할머니와 소녀들

→ 비녀를 직접 꽂아주시는 할머니



→ 강희옥 할아버지와 할머니

→ 헌 옷 가게에서의 소녀들



→ 소녀들의 노잼



밥!생명의고리잇기 회원이

내-일상상프로젝트

STEP2 재능탐색 워크숍
STEP3 내-일 찾기 프로젝트

전주공업고등학교
1학년: 김은서, 라은예, 문수영, 이현진, 이연진, 진재민, 진희민, 정재윤, 조은정, 조민서
2학년: 구윤근, 김효민, 신승철, 이동연, 정대영

재능탐색 워크숍

Y청소년사와
- 진안 사과

샤샤샤
- 북한산 된장, 간장

수북강령
- 진안 효소 음료, 유기농 설탕 솜

세네기 제과
- 사회적 기업 전주빵

내-일 찾기 프로젝트

부산 1
일정: 11월 11일 ~ 13일
내용: 동아리 '코이'와 만남, 부산 탐방
참여자: 이동연, 정대영, 김효민, 구윤근, 신승철

내-일 찾기 프로젝트

부산 2
일정: 11월 17일 ~ 19일
내용: 동아리 '코이'와 만남, '더코이' 작업장 방문, 부산 탐방
참여자: 진희민, 이연진

내-일 찾기 프로젝트

서울
일정: 11월 17일 ~ 19일
내용: 경복궁 프로젝트, 아자센터 방문(청소년활동탐방), 서울 탐방
참여자: 라은예, 조은정, 김은서, 이평안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소감

- 물건 판매를 위한 수고를 느끼게됨
- 돈의 소중함을 깨달음
-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좋음
-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우는 계획이라서 더 즐거움
- 자유로움을 만끽함
- 역할분담 덕분에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
-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음



지금, 만나러갑니다 명원이

학교에서는 그간 걷는 법만 알려줬다. 그동안 나에게 목 적은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의 길만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만나러갑니다 정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02_진로, 우리의 과제는?

고산향 이현경 선생님과 전주공업고등학교 남상팔 선생님의 말을 빌려보았습니다.



이현경 | 진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로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지속성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삶을 제공하는 것이예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데 희망만 주는 것은 아닐지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서른에 꿈을 가졌고, 마흔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흔셋,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진로를 중요하게 다룬지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노하우를 쌓은 공교육 진로 시스템과 지금의 우리 프로젝트들이 함께 하면 시너지가 클 겁니다.



남상팔 | 청소년에게 진로는 곧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청년 실업을 걱정하며 동시에 조기취업을 중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달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적에 맞추어 인문계와 실업계를 선택하고, 성적에 따라 자존감을 상실하고, 회복합니다. 이들이 삶의 주도성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로도 찾을 수 있겠지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는 뜨거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 주체들과 함께 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 사회 경제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교육은 퇴보에서 전

향하여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통한 직업체험 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로 동아리 활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벌, 지연, 학연 주의가 타파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지만 일-학습-삶이 연결되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 지역이 앞장서야겠습니다.



청소년 창작지원 내-일상상프로젝트

발행인 희망제작소

편 집 희망제작소

집필진 이경신(전주·순창), 이영미(완주)

발행일 2017년 2월 22일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 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2016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청소년 **창직지원**

내일 **2** **방방** 프로젝트



'2016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